

코스피, 2700선 회복... 美 FOMC 앞두고 금리인하 '주목'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코스닥, 3.12% 상승... 866.18 기록
ECB 기준금리 인하 등 外人 투심 개선
美 지난달 CPI·PPI도 발표 예정
금리인하 기대 부응 시 상승 탄력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3.17포인트(1.23%) 오른 2722.6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린 1365.3원으로, 코스닥지수는 15.43포인트(1.81%) 상승한 866.18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최근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돼 있어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OMC 회의 후 공개될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한다면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실망감이 확대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86.15포인트

(3.27%) 오른 2722.67, 코스닥은 같은 기간 3.12% 상승한 866.18을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데다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정체와 미국 5월 제조업 지표 둔화 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의 완화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도 개선됐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 4.6%대로 올랐다가 지난주 한때 4.2%대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53억원, 183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8560억원을 순매수,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13일(한국시간) 새벽에 공개될 6월 FOMC 회의 결과와 점도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준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이하 현지시간) 6월 FOMC 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회의 직후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인하

횟수 전망치가 1~2회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연내 금리인하 1번을 선반영해 왔다는 것"이라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신중해지고, 다소 패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내 2번 금리인하로 점도표 변화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6월 FOMC 회의를 전후해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2번 금리인하 점도표와 함께 2개월 연속 물가 둔화가 확인된다면 7월 FOMC에서 금리인하 단행 기대가 커질 것"이라며 "6월 FOMC와 5월 CPI, PPI 확인 이후 7월 금리인하 확률이 금리동결 확률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탄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AI 수요증대로 '20만 닉스' 명성 회복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전 거래일비 7.12% ↑... 20만7500원
엔비디아 도약, TSMC 협력 논의 영향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증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의 명성을 다시 회복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7.12% 오른 20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9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엔비디아의 도약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큰 힘이 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종가 20만원대를 기록하며 29일 장중에는 21만원 선까지 이르며 투자자들의 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의 영향은 물론, 최대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 회장과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는 여세를 몰아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4'에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는 등,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AI시대'를 주제로 열린 해당 박람회에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리사 수 AMD CEO, 팻 겔싱어 인텔 CEO, 웨이저자 TSMC CEO, 르네 하스 ARM CEO 등이 모여 이목을 끌었다.
SK하이닉스는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컴퓨텍스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며 "업계 최초, 최고의 제품을 통해 AI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는 '20만 닉스'에 안착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6~28만원까지 예측하고 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렸다. 다올투자증권은 26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AI 수요 외에 레거시(구형) 수요의 회복세가 동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임직원 모습.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기술사업평가 통과

초격차 특례제도 통해 평가 받아
여유자금 유동성 확보... 상장 추진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기술사업성평가를 통과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한걸음 다가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3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2024년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으로 인정받고 초격차 특례제도를 통하여 기술사업성평가를 받았다. 초격차 특례제도는 소부장 특례제도와 동일하게 한 개 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기술사업성평가를 통과하는 코스닥시장 상장 특례제도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가노이드 기술은 동물시험의무화 폐지 등의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의 기술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정받은 재생치료제 생산 기술력과 성장성, 신소재 평가 솔루션의 사업화 경쟁력 및 성과를 인정받아 기술사업성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시리즈 A와 B를 통하여 누적 480억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비용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하여 향후 다년간의 여유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시리즈 C나 프리(Pre)-IPO 고려없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外人, 7개월 째 순매수... 투자금액은 줄어

금감원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국내 주식시장에 총 3조50억 순투자
보유금액 잔액, 3개월 연속 하락세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지만 투자금액은 소폭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총 3조50억원을 순투자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3670억원, 161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상장채권에서는 1조4760억원을 순투자했다.
주식시장에서 7개월 연속 순매수세는 보이고 있지만 지난 3월에 이어 순매수 금액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난달 순매수 금액은 4월 기록한 2조262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가

량 감소했고, 3월 매수 금액인 5조102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1조5290억원에 그쳤다.
5월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대비 29.1%로 4월보다 0.2% 늘어났지만 보유금액의 잔액은 11조원 가량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보유규모로는 미국이 외국인 전체의 316조원(39.9%)을 기록했고 ▲유럽 242조8000억원(30.7%) ▲아시아 117조4000억원(14.8%) ▲중동 14조6000억원(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상장채권 3조724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24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1조4760억원을 순투자했으며 보유잔액도 함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미주, 유럽 순으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로 순투자액이 많았으며,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117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중 47%를 보유해 가장 보유규모가 컸다.
종류별로는 국채 등을 순투자, 통안채 등을 순회수하면서 5월 말 기준 국채 228조1000억원, 특수채 22조7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말 기준 국채 224조2000억원, 특수채 22조8000억원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채와 특수채 각각 지난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총 1.5만주 매입

총 11억 4908억 어치 금액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원대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가 부양 차원에서 자사주를 잇따라 사들였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1만5490주를 매입했다. 금액으로는 11억4908억원어치다.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은 결제일 기준 지난 3일 삼성전자 보통주 5500주를 주당 7만3700원, 총 4억535만

원어치를 장내에서 매수했다. 같은 날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5000주를 주당 7만3500원, 총 3억6750만원어치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또 김동욱 재경팀장(부사장)은 지난 5일 2000주(1억5180만원)를, 정재욱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 부사장은 지난 3일 1330주(9948만원)를 각각 매입했다. 재경팀 담당 임원 윤주한 부사장은 5일과 7일에 총 660주(4975만원)를, 지원팀장인 박순철 부사장은 7일에 1000주(7520만원)를 매수했다. /원관희 기자